

고성군생활체육관 심각한 부실공사

진입로 보도블럭 가라앉고, 오수관로 아스콘공사 구멍 ‘송송’ ... 군 관계자 “보수공사 계획”

고성군이 지난해 12월 31일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총 17억원을 들여 준공한 고성군생활체육관(국민생활체육관)이 심각한 부실공사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고성군은 지난해 5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개월간에 걸쳐 지상1층 지하1층, 연면적 1,650㎡, 건축면적 823㎡ 규모의 현대적 시설로 고성군생활체육관을 건립했다.

또 지난 3월 12일에는 황종국 군수를 비롯한 기관단체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12일과 13일 이틀간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국민생활체육 배구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당시 고성군은 “일기에 관계없

이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즐길 수 있게 되어 스포츠산업 육성과 지역 체육발전에 한 몫을 담당하는 것으로 기대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까지 내보내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다.

그런데 최근 생활체육관 주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종합운동장 쪽에서 출입하는 1층(지하1층) 진입로의 보도블럭 10여 곳이 심각하게 가라앉아 보기 흉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생활체육관에서 연결된 약 300여m 길이의 오수관로 공사와 관련된 아스콘 포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10여 곳이 가라앉거나 구멍이 뚫렸다. 구멍이 뚫린 곳을 들여다보면 심한 곳은 내부가 거의 1m나 빈 공간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을 본지에 제보한 A씨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실공사를 한 관련 업체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관계 공무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요즘 같은 세상에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며 “TV 프로그램인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갈 일”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이에 대해 고성군 관계자는 “겨울철에 공사를 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5월 들어 토목 등 전반적인 보수공사에 들어갈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고성군이 지난해 12월 31일 준공한 고성군생활체육관 진입로 보도블럭이 심하게 가라앉은 모습(사진 맨위), 나머지 2장의 사진은 오수관로 공사를 한 뒤 아스콘 작업을 한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가라앉은 모습.

박승근 기자

최문순 제36대 강원도지사 당선

지난달 28일 취임식 ... “도민을 하늘과 같이 귀하게 생각하겠다”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최문순 후보가 여론조사 등의 예상을 뒤집고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를 누르며 강원도지사로 선출됐다. <관련기사 2면>

개표 결과 최문순 후보는 29만3천509표(51.08%)를 득표해 26만7천538표(46.56%)에 그친 엄기영 후보를 2만5천표 차이로 누르고 도지사에 당선됐다.

최 당선자는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춘천과 원주를 비롯해 11개 시군에서 이겼다. 설악권에서는 속초와 양양에서 이기고, 고성에서는 졌다.

이번 선거에서 최문순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광재 전 지사에 대한 동정론과 선거 막판에 터진 강릉 불법 콜센터사건 등의 영향으로 민심이 그동안 열세에 있던 최 당선자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당선자

한편 최 당선자는 28일 오후 2시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제36대 강원도지사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최 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도의 모든 권력은 도민에게서 나온다는 진리를 다시한번

확인하면서 도민들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도민 모두를 하늘과 같이 귀하게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최 지사는 취임에 앞서 국립현충원과 춘천 우두동 종렬탑을 참배하고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받았다. 취임식 후에는 18개 시군 시장·군수 상견례를 하고 도의회를 방문했다.

한편 민주당 강원도당은 28일 ‘우리는 자랑스러운 강원도민이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최문순 지사는 이제 더 이상 민주당 지사가 아니라 변화와 발전을 갈망하는 강원도민의 도지사”라며 “강원도민의 민심을 얻은 최문순 지사의 진심이 강원도의 미래, 강원도의 비전으로 꽃피워질 수 있도록 힘과 뜻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영동OA사무기

모디지털복사기 □소모품판매
 □잉크젯 · 레이저 프린터 □팩스
 □복합기렌탈 □LCD프로젝터

681-7607, 010-3179-7607